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전문

##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개인이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경찰과 소방 등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 잘못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보도는 모방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살의 동기나 방법, 도구, 구체적인 장소 등을 보도하면 막연하게 자살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 또는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자살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이후 언론의 자살보도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살률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을 소개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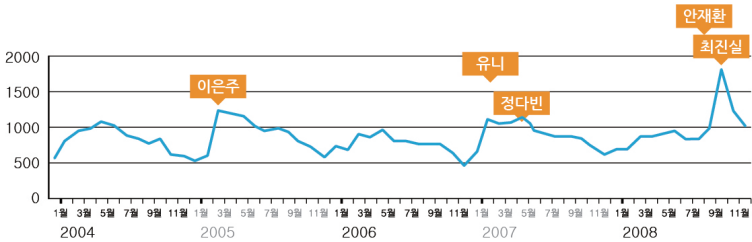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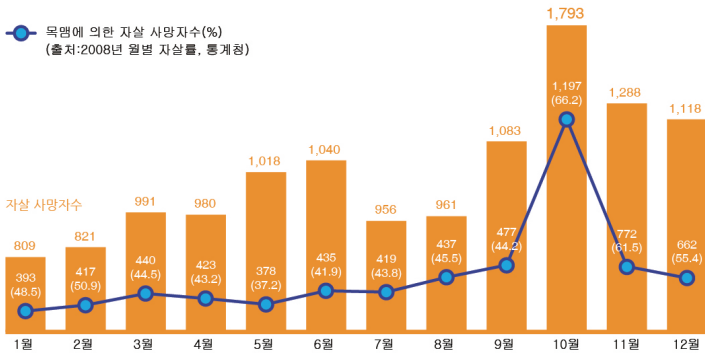
### ■ 전문

- 04 ■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 07 ■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12 ■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 15 ■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 19 ■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 1)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자살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자살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자살 사망자 수



• 오스트리아에서는 1978년 지하철이 처음 개설된 이후, 지하철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자살 방법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미디어가 지하철 자살을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기사거리로 보도하면서 자살과 자살 시도 빈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오스트리아 자살예방협회(OVSKK)는 이에 비엔나의 신문에 실린 자살 보도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 이 연구에 따라 언론 보도 지침을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하고, 자살 사건 보도 시, 이 원칙을 따라 줄 것을 부탁하였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1988년부터 지하철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져 안정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자살 보도를 금지하지 않고도 언론과의 협동하에 자살 보도의 질을 높여 모방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좋은 예가 되었다.

## 2) 자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송 보도나 신문 지면 등에서 자살 사건을 우선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 3)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저',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합니다.

| Bad   | Good  |
|---|---|
| <p><b>계룡시 군골프장 여성 캐디<br/>번개탄 피워 자살</b></p> <p>대전의 한 빌라에서 계룡시 군 골프장에 근무하는 여성 캐디가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시 변동의 한 빌라 욕실 안에서 A(25·여)씨가 번개탄을 피워 숨진채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A씨를 처음 발견한 남자친구 B(29)씨는 목욕탕 안에 A씨가 쓰러져 있는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헤어지자거나 '죽고 싶다'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적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군골프장 관계자와 동료 캐디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중이다.</p> | <p><b>계룡시 군골프장 여성 캐디<br/>숨진 채 발견</b></p> <p>대전의 한 빌라에서 계룡시 군 골프장에 근무하는 여성 캐디가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시 변동의 한 빌라 욕실 안에서 A(25·여)씨가 숨진채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A씨를 처음 발견한 남자친구 B(29)씨는 목욕탕 안에 A씨가 쓰러져 있는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헤어지자'거나 '죽고 싶다'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적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이유에 대해 군골프장 관계자와 동료 캐디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중이다.</p> |

자살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 4)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 지어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살로 명확히 판정되기 전까지 사인을 자살로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보도는 삼가야 합니다.

|            |   |  |
|------------|---|--|
| <b>Bad</b> | <p><b>모델 김유리 음독자살, "세상엔 나 혼자뿐"</b></p> <p>모델 김유리(22)가 음독자살로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김유리는 19일 새벽 음독자살 기도 후 서울 삼성동 서울 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지난 16일 새벽 김유리의 미니홈피에는 '아리랑 생각해 봐도... 백번을 넘게 생각해봐도... 세상엔 나 혼자뿐이다.' 라고 외로움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온 바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lt;이하 중략&gt; 한편, 김유리는 1989년 서울 생으로 서울올림픽, 대구콜렉션 등 다양한 패션쇼 무대에 서며 모델로 활동해 왔다.</p> | <p><b>경찰 "故 김유리 부검결과, 음독자살 보도는 명백한 오보"</b></p> <p>지난 18일 사망한 모델 故 김유리(22)의 1차 부검결과가 나왔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인의 사체부검결과 "외상의 흔적이 없고 내부장기손상 및 약물중독증상도 없다"며 "사인을 음독자살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히며 그녀의 사인이 자살도 타살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인은 사망 당시 키 17cm에 몸무게 47kg으로 마른 상태였으나 사망에 이를 만큼의 기아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사망과도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발견 당시 방안에 신경안정제와 감기약이 있던 것을 감안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약물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부검 결과는 20여일 후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p> |
|------------|---|--|

자살로 보도되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살로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보도는 삼가야 합니다.

#### 5) 자살과 관련된 자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삼갑니다.

'연인은 자살', '또 자살', '자살 확인', '자살의 전염'과 같이 자살이 유행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으며, '자살 성공', '자살 실패'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
|---|
| <b>Bad</b>  |
| <p><b>홍두래 취면식 사망 '추경'</b> <span style="color: red;">■</span> <b>베르테르의 재연나</b></p>    |
| <p><b>또... '죽음의 전염병' 막아라</b></p> <p>연애중 이어 있던 연인인 자살 충격 우울증환자등 모방자살 가능성 우려</p>  |
| <p>홍두래 연인인 홍두래가 사망 후 10일 만에 사망 소식을 전하며, 베르테르의 재연나도 자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p> <p>홍두래가 사망한 지 10일 만에 사망 소식을 전하며, 베르테르의 재연나도 자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p> <p>홍두래가 사망한 지 10일 만에 사망 소식을 전하며, 베르테르의 재연나도 자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p> |

선정적 표현 자체만으로도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1) 범죄 사건을 다루듯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Bad**

####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미사대교서 투신

유튜버 양예원 사건의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가 북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양예원 사건의 피의자 정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경기 남양주 미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가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근처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이하생략)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사진 유출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미사대교 투신지점별간 원을 중심으로 A 씨를 수색하고 있다.

자살 장소를 공개하는 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유인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구례 초등학교 교사 사망, 점심시간 빈 교실서 목매 숨진 채로 발견



구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1일 구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 28분쯤 전남 구례군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 교사 A씨(45)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학생과 동료 교사가 발견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나 우울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다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 측은 교사를 발견한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과 치료를 할 방침이다.

## 동반자살 추정, 20대 남녀 4명 시체 '번개탄, 화덕, 술병 발견'

대구 빌라에서 20대 남녀 4명의 시체가 발견됐다. 13일 오후 3시 10분경 대구 달서구 모 빌라에서 A(26)씨 등 20대 여자 3명과 남자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부산에서 실종신고 된 A씨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 한 결과 경찰은 빌라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겨있는 남녀 시체를 찾아냈다. 현장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화덕, 빈 술병 5~6개, 가족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짧은 내용의 유서 1장이 남겨져 있었다. 빌라는 숨진 이들 중 1명이 살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반자살로 추정하지만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주변인 등의 진술을 통해 사망 동기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자살방법과 도구를 공개하는 것은 모방자살의 가능성을 높이니 신중해야 합니다.



## 2)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살은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Bad

### 30대 남성 자택에서 자살..“가상화폐 투자 실패 추정”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했다.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쯤 서울 동작구 양녕로 한 자택에서 A씨가 목을 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A씨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원금손실 등의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비트코인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실제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계좌 확인을 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투자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이하 생략)

비트코인에 실제 투자한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자살의 원인을 단정 짓는 보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심부름 자살동기의 단정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비트코인 투자자)에게 동일시 효과를 유발하여 자살충동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Bad

### 60대 남성, 주식 투자 큰 손실 후 목 매 숨져

18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A(68) 씨가 안방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년여 전 퇴직한 이후 지난해부터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천만 원을 손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2개월여 전부터는 부산의 한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Bad

### '취업이 되지 않아...' 30대 청년 스스로 목숨 끊어

취업이 되지 않아 일자리를 찾으려 전국을 돌아다녔던 한 30대 청년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강릉시 주문진 인근의 한 모텔에서 퇴실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주인이 방에 들어가다가 숨져 있는 A(32)씨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KTX를 타고 강릉으로 왔으며 주문진 인근의 한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년 전 부모님과 함께 살던 인천을 떠나 일자리를 구하러 안산 등 전국을 돌아다녔으며 각종 아르바이트와 일용직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까지는 고항인 인천에 몇 번 다녀갔지만, 그 이후로는 집에 가지 않아 가족들과는 전화나 메신저로만 가끔 연락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가족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든 메신저를 보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자살동기를 추정 보도하는 것은 자칫 자살을 미화하거나,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살충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3)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사건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인터뷰나 관련 기관의 초기 발표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Bad**

#### 노회찬 투신아파트 경비원 '쿵' 소리에 가보니 맥박 없어'(종합)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현관 부근에서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시간대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쪽에 노 의원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질문에 답하는 '노회찬 투신 사망' 신고한 경비원  
23일 오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한 아파트에서 노 원내대표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경비원 이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투신 중학생 '애들이 괴롭혀' 유서, 아버지가 만든 가짜였다



울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중학생의 유품에서 학교 폭력을 암시하는 쪽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해당 쪽지는 학생의 아버지가 만든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월 15일 오후 6시 34분께 울산의 한 청소년문화센터 옥상에서 중학생인 A(13군)이 떨어져 숨졌다. 당시 A군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을 담은 유서를 남겼고, 경찰은 학교 폭력과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 단순 번사 사건으로 처리했다. 한 달여가 지난 7월 21일 A군의 아버지가 A군의 옷 주머니에서 '학교가 싫고 무섭다. 애들이 나를 괴롭힌다. 죽고 싶다. 학교 전담경찰관은 연락이 없다. 우리

가 가난해서 무시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견했다. 이 쪽지에는 자신을 못 살게 한다는 특정 학생 2명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 쪽지를 학교 폭력의 단서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A군의 아버지는 A군의 사건을 추적 취재하던 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쪽지는 내가 위조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경찰도 이런 소식을 접하고 현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가 20대인 A군의 형을 시켜 쪽지를 만들었으며, 이를 A군이 작성한 것처럼 속여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이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 한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에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고, **경찰도 단순 번사로 처리하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쪽지를 위조한 것으로 경찰은 추측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쪽지 진위와 상관없이 A군을 상대로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 후속 과정에서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쪽지 진위에 대한 확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것과는 별개로 학교 폭력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었다'면서 '쪽지가 가짜로 판명됐지만, 수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방자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언에 대해 직접적인 묘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 4)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Bad

### 샤이니 멤버 중현 숨진채 발견… “힘들었다” 마지막 문자



아이돌그룹 샤이니 멤버 중현(28· 본명 김중현)이 18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레지던스호텔(호텔식 주거시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하 중략)** 경찰 관계자는 “중현이 발견된 레지던스에서 **갈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타고 있는 프라이팬이 함께 발견됨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유가족과 논의 해 부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중현이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이미 소생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걸로 안다”고 했다.

Good

### ‘푸른밤’故샤이니 중현 특집 취송 “사회적 파장 고려”(공식)



故샤이니 중현이 DJ로 활동했던 ‘푸른밤’ 추모 방송이 취송된다. MBC 측은 12월 21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푸른밤’ 추모 특집 방송을 취송한다고 밝혔다. MBC 라디오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고인의 욕성이 다시 전파를 타는 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방송을 취송하기로 어렵게 결정했다**”며 취송 이유를 알렸다. ...**(이하 중략)** 한편 샤이니 멤버 중현은 지난 12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 유명을 달리했다.

Good

### 샤이니 중현 사망보도, 이런 글 탓에 누군가 죽을 수 있다

| 2017.12.18.(월)<br>21:41:00 기준 | 2017.12.18.(월)<br>21:41:30 기준 | 2017.12.18.(월)<br>21:42:00 기준 | 2017.12.18.(월)<br>21:42:30 기준 |
|-------------------------------|-------------------------------|-------------------------------|-------------------------------|
| 1 내보힐찾아올                      | 1 내보힐찾아올                      | 1 내보힐찾아올                      | 1 내보힐찾아올                      |
| 2 샤이니 중현                      | 2 샤이니 중현                      | 2 샤이니 중현                      | 2 샤이니 중현                      |
| 3 샤이니                         | 3 샤이니                         | 3 샤이니                         | 3 샤이니                         |
| 4 생명보험협회                      | 4 생명보험협회                      | 4 생명보험협회                      | 4 생명보험협회                      |
| 5 최서민                         | 5 최서민                         | 5 최서민                         | 5 최서민                         |
| 6 레지던스                        | 6 레지던스                        | 6 레지던스                        | 6 레지던스                        |
| 7 순회보험협회                      | 7 순회보험협회                      | 7 순회보험협회                      | 7 순회보험협회                      |
| 8 갈탄                          | 8 갈탄                          | 8 갈탄                          | 8 갈탄                          |

▲네이버 금상승 검색어에는 사망 기사에 나왔던 ‘갈탄’이 계속 상위권에 노출됐다.

18일 (중앙일보) 트위터에 ‘속보, 샤이니 중현, 청담동서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클릭 장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언론은 중현의 사망 당시 무엇이 방 안에 있었는지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다음 · 네이버 등 주요 포털 금상승 검색어를 보면 자살 수단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이름이 계속 상위권에 등장했습니다. ...**(이하 생략)**

###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 1) 자살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죽음을 암시하는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Bad**

**투신 과정 그대로 보여준 YTN...  
민언련 "충격적인 보도"**



**여성 투신해 사망...구경꾼들 환호성과 박수**

**Bad**

**마포대교 자살시도 사고**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전망대에서 자살시도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투신자를 구조하고 있다.

**Bad**

**안산 상가서 남녀 4명 사망, 질소  
가스로 동반자살 추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사무실에서 남녀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살사이트 등에서 만나 동반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일 오전 8시 20분 경찰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 2층사무실에서 A(26·여)씨 등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숨진 사무실 안에서는 가스통과 호스, 비닐봉지 등이 발견됐다.

**Bad**

**[영상] "겁먹었니? 왜 안 뛰어내려"  
여고생 투신 자살 부추긴  
중국 시민들**



19세 여고생이 고층빌딩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말리기는커녕 어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기거나 겁먹어 못 뛰어내린다는 식의 야유를 보냈다. 구조대원의 손을 아슬아슬하게 잡고 있던 여고생은 결국 손을 뿌리치고 뛰어내렸고 이를 본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 2) 유명인 자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Bad**

**故 안재환,  
 번개탄 피우며  
 소주 마신후  
 만취 자살한 듯**



**Bad**


**최진실, 압박붕대로 목매 숨져…자살추정**



탈런트 최진실씨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일 오전 6시 15분에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 경찰이 현장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구 잠원동 반포지구대에 신고가 들어와 최씨가 자살했다는 신고를 받아 사망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장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이날 아침 샤워부스에 압박붕대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Bad**

**[포토] 사이니 종합 사망  
 현장 증거물 수습하는 경찰**



그름 사이니 증현이 18일 오후 서울 청담동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숨진 사이니 증현이 발견된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

**Bad**

**[포토] 증현, 믿을 수 없는  
 현장의 모습**



그름 사이니 증현이 18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쓰러진 채 발견, 병원에 옮겨진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 3)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 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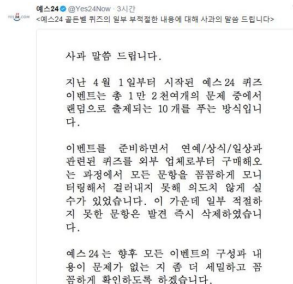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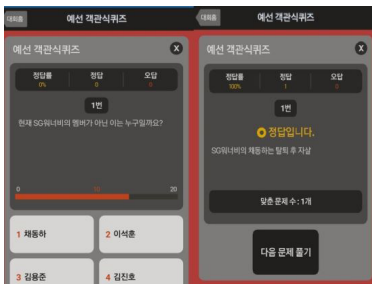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사건 보도 시, 위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4) 이러한 원칙은 인터넷 방송, 1인 방송 등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송 매체는 물론, 다양한 디지털 매체(유튜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방송 등)에서도 자살 사건을 다룰 때에 자살예방 관련 상징이나 사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보도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살한 연예인'을 퀴즈 소재로... 'YES24 퀴즈대회'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16일 '쇼를 돕는 YES24 퀴즈'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글쓴이는 "YES24가 요즘 진행하는 퀴즈 이벤트 예선에 참여했다니 그를 SG워너비에 관한 질문이 등장했다"며 온라인 퀴즈 캡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현재 SG워너비 멤버가 아닌 이는 누구일까요?'라는 질문이 제시돼 있었다. 보기는 '1. 채동하 2. 이

석훈 3. 김용준 4. 김진호'가 제시됐다. 모두 다 멤버라고 생각했다는 글쓴이는 무심히 '1. 채동하'를 눌렀다고 한다. 그러자 등장한 화면에 '정답입니다.'란 글과 함께 '채동하는 탈퇴 후 자살'이란 설명이 곁들여져 있었다. 글쓴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비극적인 자살이 이렇게 퀴즈에 나오니 마음이 이상하다"며 "정답을 맞힌 셈이 됐지만 기분이 좋

지 않다"고 말했다. 네티즌 사이에선 "없는 사실도 아닌데 예민하다"는 반응과 "글이 고민을 언급했어야 했냐"는 반응이 잇달았다. 논란이 일자 YES24는 15일 공식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렸다. YES24는 "외부 업체에서 퀴즈 문제를 구매해오는 과정에서 문항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걸러내지 못했다"면서 "적절하지 못한 문항은 발견 즉시 삭제했다"

지 않다"고 말했다. 네티즌 사이에선 "없는 사실도 아닌데 예민하다"는 반응과 "글이 고민을 언급했어야 했냐"는 반응이 잇달았다. 논란이 일자 YES24는 15일 공식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렸다. YES24는 "외부 업체에서 퀴즈 문제를 구매해오는 과정에서 문항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걸러내지 못했다"면서 "적절하지 못한 문항은 발견 즉시 삭제했다"

지 않다"고 말했다. 네티즌 사이에선 "없는 사실도 아닌데 예민하다"는 반응과 "글이 고민을 언급했어야 했냐"는 반응이 잇달았다. 논란이 일자 YES24는 15일 공식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렸다. YES24는 "외부 업체에서 퀴즈 문제를 구매해오는 과정에서 문항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걸러내지 못했다"면서 "적절하지 못한 문항은 발견 즉시 삭제했다"

전통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 소셜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및 사업자 등도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루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 1)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 ‘마지막 탈출구’, ‘~ 이기지 못해 뒤따라 자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도 넘은’ 자살보호  
중헌 사망이 ‘단독’? 인간의 존엄성 침해 우려도**

..(전면중략) 방송사를 비롯해 각 언론사에서 포털 사이트에 송출한 중헌의 사망 사건 관련 보도는 수 천 건에 이른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헌의 과거 발언을 두고 그가 평소 어떤 심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측하거나, 그가 숨진 당일 행적은 무엇이었는지, 과거 콘서트에서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 (이하중략) 특히 앞서 **故김주혁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단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MBN은 중헌이 경찰에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단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몇몇 언론에서도 **'단독'이라는 말머리를 붙이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소식을 전했다.** 통상 언론계에서 '단독'은 취재기자가 일련의 취재 과정을 거쳐 얻어낸 것으로 공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그러면서도 아직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기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헌의 사망 사건에서 이 '단독'은 그저 '가장 먼저 사실을 알아내 보도한' 정도의 의미로 격하됐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언론의 과도한 속보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명인의 자살은 그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단독]이라는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자제하여야 합니다.

## 치매 아내 4년 돌보던 80대 끝내

승용차로 저수지 빠져 동반자살  
“운전 가능할 때 함께 가기로” 유서

지난 13일 오후 4시20분께 수심이 3m가량 되는 경북 북부지역의 한 저수지. 독에서 5m쯤 들어간 수면에 승용차 1대가 지붕만 드러난 채 잠겨 있었고, 승용차에서 30m쯤 더 들어간 물 위에는 사람이 떠 있었다. 독 위에 있던 산불감시요원(65)이 황급히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승용차를 인양했다. 승용차 운전석에는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채 물에 떠 있던 사람은 할머니였다. 할아버지는 저수지 근처에 사는 ○(89)씨였고, 할머니는 아내 ㄱ(84)씨였다. 부부의 집 안방에는 할아버지

가 편지지에 자필로 쓴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 이제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섭섭하다. 너무나 힘들다. 내가 죽고 나면 아내는 요양원에 가야 하니까,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 함께 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하중략)** 불행은 4년 전부터 시작했다. 건강하던 아내가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멀쩡할 때도 있었지만, 갑자기 치매 증세가 나타나면 용변도 가리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자, 직접 할머니의 수발을 들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마을 주민들이 본 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오후 부부는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저수지 독엔 할머니의 주인 없는 신발만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남긴 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이 길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야 할 가장 행복한 길이 다.”**

자살자의 최후나 사후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해석하는 기사는 자살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 자살의 경우, 마치 생전의 아름다움이 사후에도 유지되거나 더 강조되는 듯한 묘사는 모방 자살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 2)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자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일가족 동반자살’은 ‘살해 후 자살’이나 ‘자살 교사’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3) 자살로 인해 고통이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4) 자살을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모순, 제도 미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로 자살을 다루는 경우에도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보도해야 합니다.

**Bad**

##### "억울하다" 유서남겼던, 스튜디오 실장 시신발견... 무고와 명예훼손 '양예원 사건' 정리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다 북한강에서 투신한 스튜디오 실장 시신이 사흘만에 발견됐다. 유튜버 양예원 강압적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사건 혐의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양예원 사건 정리'에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암사대교 인근에서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회 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다 투신한 스튜디오 실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건의 연루자가 자살을 하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양예원 사건의 핵심 연루자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수사종결 된다."면서 "연루자가 사망했는데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해서 유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 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자살한 사건의 보도에서, 자살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거나 사회적 비난이 동점으로 바뀌는 등 어려움이 해소되는 듯한 보도는 사람들에게 자살이 유용하다고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 5)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알립니다.

자살과 자살시도로 발생하는 폐해나 유가족의 고통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Good**

#####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여성 살해한 30대에 징역형

휴대전화 앱에서 만난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여성만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는 28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뒤따라 목숨을 끊으려 한 정황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하중략)

차씨는 올해 2월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휴대전화 앱으로 만난 A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약속했다. 이후 지난 4월18일 자신의 집에서 "먼저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를 숨지게 했다.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검찰은 남의 부탁을 받아 살해한 혐의로 차씨를 재판에 넘겼다.

동반자살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보도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1)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자살 사건 조사와 보도에서 유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태이며 자살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2)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Good

**노회찬 의원 시신 운구 생중계까지 한 TV조선  
고인 두 번 죽이는 언론,  
자살보호 윤리강령에도 ‘자극적인 현장묘사’ 선정적 보도’ 여전**



정의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고인에 대한 무분별한 취재를 삼가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 사망 관련 보도 역시 그동안 유명인의 자살을 대한 언론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23일 하루 종일 시신 운구 모습을 생중계하거나 현장을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묘사한 자극적인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하 중략] 특히 노 의원이 구급차에 실려 운구되는 사진이나 아파트 고층에서 노 의원의 사망 현장을 내려다보듯 찍은 사진 등까지 여과 없이 보도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매체는 노의원의 시신이 운구되는 과정을 쫓아가며 생중계하기까지 했다. ...[이하 중략]

필요 이상의 자극적인 자살보호 및 영상송출에 대한 언론의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3) 유가족의 신분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살자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Bad

**조민기 딸 오늘(10일) 귀국…**  
**빈소 · 유서 비공개+부검NO[종합]**

조민기 빈소가 비공개 속에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딸 조윤경 씨가 오늘(10일) 귀국한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조민기 딸 조윤경(23) 씨는 이날 저녁 귀국해 빈소를 찾는다. 조민기는 딸의 대학원 입학식을 고려해 경찰 소환 조사를 종전 6일에서 12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민기는 죽기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딸 조윤경 씨의 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 기사는 3월 채널A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조민기와 종종 통화를 했다. 조민기가 '원래 경찰에서 6일 오라고 했는데 딸 대학원 입학하는데 신경 쓰이지 않게 하려고 날짜를 늦췄다고 하더라'라는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조윤경 씨가 미국 프리스턴대 대학원에 합격한 사실을 알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조윤경 씨는 미국 명문대인 일리노이 공과대를 조기 졸업했다. 이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당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이하 생략)

Bad

**노회찬 정의당 의원, 어머니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

[앵커]  
 드루킹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오늘 오전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장소는 자택도 아닌 병원에 **아흔살 노모가 살던** 서울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지 하루만인데 노 의원이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건지, 향후 특검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의당과 정치권의 반응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노회찬 의원이 서울 **중구 동성부부 집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오늘 오전 9시38분, 노회찬 의원은 이곳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하중략) 경찰은 "사망경위에 큰 의문이 없고 유족이 원하지 않는만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90살 노모는 일주일 전 지방 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노 의원은 어제 오후 귀국 직후 마지막 병문안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노모의 나이와 신체상태, 동생부부의 거주지 등을 알릴 필요는 없으며, 유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신중하게 앞서 고려해야 합니다.

#### 4)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

Good

**방송은 종현의 유서를 보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SBS 등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 줄 수 있다" 보도 안 해**

지난 18일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세상을 떠난 후 언론의 자극적 자살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방송사에선 여전히 종현의 유서, 조문대 행렬 등 관련 리포트를 주요 뉴스로 내보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이하 중략) MBC와 SBS, JTBC 등은 이날 메인뉴스에서 종현 관련 리포트를 보도하지 않았다. SBS 한 기자는 "어제 편집회의에서 이 리포트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 1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지만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유서를 보도함으로써 팬들과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기보다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봤기에 보도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Good

**故조민기, A4 6장 분량 유서 발견**  
**...유족의 입장 고려해 공개 NO**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조민기가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 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가 전날 숨진 창고에서 A4 용지 크기, 종이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는 9일 오후 4시 5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 지하 1층 창고 안에서 목을 매 있는 것을 조씨의 부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 자살예방 정보 및 상담기관 안내

| 구분                  | 기관             | 연결번호         | 웹페이지                   |
|---------------------|----------------|--------------|------------------------|
| 중앙기관                | 중앙자살예방센터       | 02-2203-0053 | www.spckorea.or.kr     |
|                     | 중앙심리부검센터       | 02-555-1095  | www.psyauto.or.kr      |
| 광역형<br>정신건강<br>복지센터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2-3444-9934 | www.blutouch.net       |
|                     |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51-242-2575 | www.busaninmaum.com    |
|                     |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53-256-0199 | www.dgmhc.or.kr        |
|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32-468-9911 | www.imhc.or.kr         |
|                     |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62-600-1930 | www.gmhc.kr            |
|                     |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42-486-0005 | www.djpmhc.or.kr       |
|                     |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52-716-7199 | www.usmind.or.kr       |
|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12-0435 | www.mentalhealth.or.kr |
|                     |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33-251-1970 | www.gwmh.or.kr         |
|                     |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43-217-0597 | www.cbmind.or.kr       |
|                     |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41-633-9183 | www.chmhc.or.kr        |
|                     |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51-0650 | www.jbmhc.or.kr        |
|                     |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61-350-1700 | www.061mind.or.kr      |
|                     | 경상남도정신건강복지센터   | 055-239-1400 | www.gnmhc.or.kr        |
|                     |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 054-748-6400 | www.gbmhc.or.kr        |
|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64-717-3000 | www.jejumind.or.kr     |
| 상담기관                |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 129          | www.129.go.kr          |
|                     | 자살예방핫라인(전국)    | 1577-0199    | www.hopeclick.or.kr    |
|                     | 생명의 전화         | 1588-9191    | www.lifeline.or.kr     |
|                     | 학교폭력근절 긴급전화    | 117          | www.safe182.go.kr      |
|                     | 한국청소년상담원       | 1388         | www.cyber1388.kr       |
|                     | 국방헬프콜          | 1303         | helpcall.mnd.mil.kr    |

